

##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 분석”

은기수\* 박수미\*\*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와 같은 ‘생애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취업유형을 규명하는 데, 특히 여성들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가 갖는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에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의 효과 이상으로 과거 생애과정의 축적된 연계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시퀀스별로 구분되는 여성들의 네 개의 취업경력 유형들 사이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시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실태조사자료 가운데 취업력 및 생활사에 대한 중단적 자료를 일원변량분석 및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간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부모의 인적자본, 건강 상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시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분된 ‘취업후 결혼형’과 ‘결혼후 취업형’은 취업 진입과 취업 단절 행위에서 매우 구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적인 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 내부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경로를 규명하는 데, 생애과정 시퀀스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핵심단어:** 시퀀스(sequence), 가족주기, 생애과정, 취업경력, 취업경로, 사건사분석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여성연구소

## I. 연구의 목적

여성들의 취업유형은 잦은 경력 단절로 특징지어진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가족주기'와 같은 '생애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여성들의 취업연속성의 증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금재호, 2001; 통계청, 1998). 이와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여성들의 취업연속성 증대를 전망하는 논의들이 주로 횡단적 자료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김영옥, 1999). 이와 같이 한국사회 여성들의 취업유형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경험적 연구들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실 한국 여성들의 취업유형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여성노동 특성의 중요한 한 단면을 드러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여성노동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취업경로의 측면에서 여성집단 내부에 매우 이질적인 하위집단들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Moen, 1985). 여성들은 자신의 인적자본량에 따라서, 또는 종사하고 있는 취업 직종이나 여성자신이 속한 가족, 특히 남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매우 이질적인 취업경로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도 생애과정의 이행에 따라서 매우 이질적인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 이행 과정은 일률적으로 논해질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질성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취업유형을 규명하는 데, 특히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연계, sequence)가 갖는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단적 분석은 조사대상의 과거의 생애사건들이 축적적으로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Allison, 1995; Abbott, 1983). 따라서 생애과정단계에 따라 민감하게 노동시장 진입·퇴장을 반복하는 여성들의 취업유형 분석에는 종단적 분석이 적합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일회적인 생애사건이 여성들의 취업이행에 미치는 영향 못지 않게 여성들의 축적적인 생애과정 씨퀀스가 여성들의 취업이행 과정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생애과정 쉼스에 주목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준, 2001). 이 연구는 여성노동에 대한 기존의 종단적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애과정 쉼스에 따라서 여성들의 취업이행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검토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들은 내용적으로는 ‘인적자본론’(Becker, 1981; Bryant, 1990; Mincer & Ofek, 1982)에 대한 비판, 방법론적으로는 ‘횡단적·정태적 분석’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인적자본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개별 노동력 공급자의 인적자본요소가 그들의 시장노동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어수봉, 1996; 이재열, 1996; England, 1982). 그 이유는 이 이론이 노동시장 외부의 성별화된 상황을 주어진 전제로 가정하기 때문이다(한국여성연구소, 1999). 여성은 양육과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성별 분업 관행을 당연시하여, 노동시장 안에서의 형식적인 공정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누적된 장애 요소들을 간과하고(Parish, 1993),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보수성을 지닌 것이다(소콜로프, 1996). 특히 어느 정도 인적자본론의 설명들이 부합되는 몇몇 서구사회와 비교해볼 때,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행위를 설명하는 인적자본론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Lee, 1996).

여성노동 연구의 방법적 측면에서 횡단적·정태적 분석이 갖는 한계점은 여성노동이 여성의 생애과정단계에 따라 민감하게 규정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횡단적 연구들이 집합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여성들 내부의 하위집단별로 나타나는 이질적인 취업경로와 여성개인의 ‘시간’에 따른 이질적인 취업경로를 규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에 대한 ‘생애과정적 접근’이 요구

되며(Elder, 1985; Moen, 1985) 이와 같은 동태적 방법에 의한 연구 논문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취업 이행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가운데 한 유형은, 주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여성들의 취업 이행 행위를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을 전후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의 취업 이행 행위가 어떠한가를 따져본다든가(Chang, 1997), 아니면 33세와 같이 여성들의 취업 이행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연령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가 있다(Elliot & Egerton, 2001). 또는 5년간의 관찰 기간 동안 여성들의 취업 이행 행위만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Moen, 1985).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여성의 생애사 자료를 대상으로 (비)취업 이행 과정의 결정 요인들을 에피소드별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이재열, 1996; 김영옥, 1999). 그런가 하면 여성들의 '취업경력'이 이후 여성들의 취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Chan, 1999; Corcoran & Duncan, 1979)와 취업단절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간제 취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Drobnic, Blossfeld & Rohwer, 1999).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유형 결정에 여성들의 생애과정 단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각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점을 전제하고, 여성취업의 다양한 지점과 각도에서 설명 대상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박수미(2002)는 여성들의 최초 노동시장 진입·퇴장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가 여성들의 취업 행위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가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단적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준(2001)은 그 동안 종단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사건추계 분석(event count analysis), 집합적 시계열 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 등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분석방법들이 개인의 경력을 사건 혹은 각 시점 단위로 쪼개어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경력을 총체적으로 고

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한준, 2001). 그는 최적일치법과 집락분석방법을 통해 일련의 생애과정 쉼퀀스를 범주화시킴으로써 세대내 사회이동 경로를 모형화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의 취업력 자료를 분석하여, 직업 경력 배열의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이동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출생코호트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따른 기회구조의 분포가 변화하는 모습을 직업배열상의 분포의 변화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서구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데 비해(Chan, 1995; Halpin & Chan, 1998), 한국사회에선 이에 비견할 만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쉼퀀스 분석의 도입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준의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는 쉼퀀스 분석의 장점과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취업의 쉼퀀스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이 논문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Scherer(2001)는 영국과 독일의 국가 비교를 통해서 청년들의 초기 직업 경력 유형에 대한 쉼퀀스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졸업후 5년간의 직업경력 배열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별되는 진입유형이 경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제도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규명했다. 그의 연구 결과 가운데 이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초기 직업 경력 배열에서 국가별로 '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전일제 근무의 남녀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영국의 경우엔 시간제 근무에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두 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차이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직 초기의 직업경력 배열 분포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시장 진입의 첫 번째 배제 기준이 '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즉 '성'이라는 범주는 노동시장 입직에서의 차별적 이동 배치 또는 아예 입직 자체에서 실패하는 원천적인 배제의 방식으로 또는 전일제 근무에서 점차 시간제 근무로 이동해가는 형태로 사회의 맥락에 따라 두 나라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가족관련 활동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들은 여성취업경력의 지배적인 유형으로 두 나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었으며, 다만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경력단절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Scherer의 연구 결과는 씨퀀스 분석을 통해서 최근 서구 사회 여성들의 취업경력을 유형화한 것으로, 이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이행과정에 대한 씨퀀스 분석 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 계기적 변수들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범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 1. 연구 가설

이 연구는 생애과정 씨퀀스가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조사대상 여성들을 취업경력 씨퀀스의 유형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사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취업중단 등의 생애사건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상이한 취업경력 씨퀀스를 지닌 집단들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인구학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의 취업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여성들의 취업 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생애과정 씨퀀스, 즉 ‘결혼’과 ‘취업’이 어떤 순서로 연계되었느냐에 따라 양분한 두 집단의 (비)취업 이행률을 분석할 것이다. 그 두 집단은 ‘취업후 결혼형’과 ‘결혼후 취업형’이며, 여성들에게 중요한 두 생애사건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취업 이행 행위와 취업 단절 행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 내용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 “취업경력별로 나뉘어진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집단내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지닌다.”

< 가설 2> “‘취업후 결혼형’ 여성들과 ‘결혼후 취업형’ 여성들의 취업으로 이행과 비취업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2. 연구 모형

### 가. 연구 방법 및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경력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이절에선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compressed life course sequences)’<sup>1)</sup> 분석 방법(은기수, 1996)을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경로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생애과정 지위 변화에 따라 분석 단위별 생애사건을 일련의 유사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학교 졸업’, ‘실업’, ‘취업’, ‘결혼’과 같은 네 가지 생애사건변수들을 활용하여 여성의 생애과정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생애사건들의 연결 순서를 통해서, 동일한 비경제활동상태가 ‘학업 상태’, ‘비경제활동(또는 실업) 상태’, ‘전업 주부 상태’ 등으로 다시 구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취업 지위에 ‘취업 상태’를 추가하여 여성들의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를 유형화할 수 있다. 그것은 ① 연속취업형 ② 불연속취

---

1)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생애사 자료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을 때 그 여성의 생애과정 시퀀스는 “학생-학생-실업-실업-실업-결혼-주부-주부-취업-취업-취업...”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것은 해마다 여성의 생애사건 또는 생애단계들이 연계된 것인데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는 이들 연계에서 ‘기간’을 무시하고 생애단계가 달라질 때만 연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에 따르면 이 여성의 경우는 “학생-실업-결혼-주부-취업...”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업형 ③ 비경제활동형(또는 주부형) ④ 결혼후 퇴장형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네 집단은 여성취업 집단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대표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씨퀀스 분석은 분석 대상을 특정한 관심 기준에 따라 유형화시키는 분석 방법으로서 자료 변형 과정의 복잡함에 비해 분석 결과가 소략한 경향이 있다. 이 연구방법이 연구 대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보다는 주로 묘사적 유형화에 그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취업 이행과정처럼 복잡한 일련의 생애과정연계를 몇 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 자체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이 논문에서처럼 ‘집단간 차이에 대한 분석’이나 ‘사건사 분석’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계되면 인과적 설명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2) 생애과정 씨퀀스별 (비)취업 이행률에 대한 사건사분석

생애과정의 씨퀀스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결혼’과 ‘취업’ 사건의 배열순서에 따라 ‘취업후 결혼형’과 ‘결혼후 취업형’의 두 집단으로 유형화한다. 그 다음에 이 집단별로 각각 인구학적 변수, 인적자본 변수, 생애과정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는 사건사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변수가 생애과정 씨퀀스의 차이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과정에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사건사분석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논문의 연구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 가운데 생애과정 변수들은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찰 기간 동안 변화되는 시간의존변수(time dependent variable)로 처리되었다. 이 절의 사건사분석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가 ‘재해율’일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은 사건사분석이다(Allison, 1995; Yamaguchi, 1991).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재해(hazard)의 특수한 모습을 상징하지 않고, 독립변수(covariate)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비례재해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 사건사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T_i$ 를 개인  $i$ 에게 있어 (비)취업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개인  $i$ 에게 있어 시간  $t$ 에 (비)취업이 일어나는 재해(hazard),  $h_i(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_i(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_i < t + \Delta t, | T_i \geq t)}{\Delta t}, \dots \dots \dots (1)$$

(비)취업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재해가 정의되면 우리는 (비)취업에 이를 때까지의 생존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dots \dots S(t) = \exp \left\{ - \int_0^t h(u) du \right\} \dots \dots \dots (2)$$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례재해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_i(t) = \lambda_0(t) \exp(\beta_1 x_{i1} + \dots + \beta_k x_{ik}). \dots \dots \dots (3)$$

양 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재해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h_i(t) = \alpha(t) + \beta_1 x_{i1} + \dots + \beta_k x_{ik}. \dots \dots \dots (4)$$

“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 또는 “비취업으로 이행률” 분석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취업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은 우측 절단(right censored)된 경우로서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 분석된다. 이렇게 조사시점까지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측절단된 자료로서 분석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줄이고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건사분석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자료와 분석 변수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2002년도 여성취업력 조사”자료 대상 가운데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15세 이상 64세 미만 4,136명의 여성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취업경력 유형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여성의 취업경력이 완료되었다고 여겨지는 40세 이상 여성들 2,34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여성들의 40세까지의 취업경력만을 네 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관찰대상간 상이한 정보의 양으로 인한 비교집단의 비대칭 문제 또는 우측절단(right-censored)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생애순서 유형별 사건사분석에서는 미혼여성을 제외한 3,326명이 분석 대상이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경력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 ① 종속변수: 현재 연령, 최종학교 졸업연령, 어머니의 취업경험 유무, 건강 상태, 자격증 소지 여부, 혼인 상태, 출산 경험 유무.
- ② 독립변수: 조사대상여성의 취업경력 유형(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 2) 생애과정 씨퀀스별 (비)취업 이행률에 대한 사건사분석

- ① 종속변수: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이행할 재해율(hazard rate),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재해율
- ② 독립변수: 인구학적 변수(출생코호트)  
 인적자본 변수(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경험 유무)  
 생애과정 변수(결혼 경험, 첫 출산 경험, 둘째 출산 경험, 6세 미만 자녀 유무, 학령기 자녀 유무, 총자녀수)

이 가운데 생애과정 변수는 관찰시작시점부터 관찰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까지의 기간(spell) 동안 변화되는 값을 측정하도록 가변변수 처리되었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생애과정 지위의 변화가 여성들의 취업 이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취업 이행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알려진 남편의 인적자본요소, 즉 남편의 학력, 직업, 소득 등과 같은 변수는 이 논문의 연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자료의 한계상 남편과 관련된 변수는 조사당시의 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 또는 비취업으로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의 취업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 남편 관련 사항과 실업률과 같은 구조적 요인 변수가 빠짐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 둔다.

#### IV. 분석 결과

##### 1. 취업경력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경력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여성의 취업경력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속취업형’이 762명으로 전체 여성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불연속취업형’은 293명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후 퇴장형’은 547명으로 전체 여성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형’은 743명으로 전체 여성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연속취업형’은 학교 졸업후 조사완료시점까지 한번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이다. 반면 ‘불연속취업형’은 졸업 후 취업, 실업, 전업주부, 재취업 등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력단절형으로서 어떤 여성의 경우 압축적 생애과정 시퀀스가 무려 12개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비경제활동형’은 졸업후 조사완료시점까지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여성들이다. 물론 이 집단내부에도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여성의 두 번째 취업진입이 평균연령으

로 볼 때 30대 후반에 이뤄지고 전체 여성의 90% 정도가 두 번의 취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집단을 동질적인 비경제활동자료를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번도 취업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전체 여성의 31.7%나 된다는 점은, 비록 이들 집단이 40대 이상의 상대적으로 나이든 여성들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여성 취업의 저조한 상태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조사자료가 횡단적 자료가 아닌 종단적 자료인 까닭에 잦은 경력단절의 특징을 갖는다는 여성들이 15세부터 현재 연령까지 한번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31.7%나 된다는 것은 여성들 내부에 취업경력 이행에서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결혼후 퇴장형'은 한번 이상의 취업을 경험하고 결혼하면서 노동시장을 퇴장한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불연속취업형'으로 분류될 여성들이다. 이와 같이 '불연속취업형'과 '결혼후 퇴장형'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까닭에 이들은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닐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횟수가 의외로 저조하다는 선행연구(박수미, 2002)와 여성들의 재취업 평균 연령을 지난 시점의 정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결혼후 퇴장형'이 중요한 취업경력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인다.

취업경력 유형별로 구성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집단들간에 연령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표 2>의 분석결과이다. 사후검증을 해본 결과, '비경제활동형'의 여성들이 다른 세 집단의 여성들에 비해서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나이든 세대의 경우 일생 동안 한번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았다.

'비경제활동형' 다음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은 '연속취업형'이고 그 다음은 '결혼후 퇴장형', '불연속취업형'이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취업연속성이 증대한다는 주장은 지지되기 어렵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취업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항 목	취업유형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합 계	
출생코호트	40대	321(42.1)	217(74.1)	262(35.3)	362(66.2)	1,162(49.6)	
	50대	267(35.0)	61(20.8)	281(37.8)	150(27.4)	759(32.4)	
	60대	174(22.8)	15(5.1)	200(26.9)	35(6.4)	424(18.1)	
교육수준	무학	118(15.5)	4(1.4)	65(8.8)	13(2.4)	200(8.5)	
	초졸	273(35.8)	57(19.4)	231(31.1)	74(13.5)	635(27.1)	
	중졸	145(19.0)	81(27.7)	191(25.7)	106(19.4)	523(22.3)	
	고졸	147(19.3)	121(41.3)	198(26.7)	240(16.6)	706(30.1)	
	전문대졸	6(0.8)	4(1.4)	4(0.5)	23(4.2)	37(1.6)	
	대졸 이상	73(9.6)	26(8.8)	54(7.2)	91(18.9)	244(10.4)	
	아버지 직업 (15세 당시)	무직	17(2.6)	2(0.8)	10(1.5)	13(2.7)	42(2.0)
	전문·관리직	36(5.4)	27(11.0)	30(4.6)	48(9.9)	141(6.9)	
사무직	49(7.4)	27(11.0)	63(9.7)	83(17.1)	222(10.9)		
판매·서비스직	52(7.8)	25(10.2)	67(10.3)	77(15.8)	221(10.8)		
농림어업직	475(71.3)	149(60.6)	446(68.8)	232(47.7)	1,302(63.6)		
생산·기술·노무	37(5.6)	16(6.5)	32(4.9)	33(6.8)	118(5.8)		
어머니 취업력 (15세 당시)	취업한 적 있다	562(73.8)	191(65.2)	456(61.4)	284(51.9)	1,493(63.7)	
	취업한 적 없다	200(26.3)	102(34.8)	287(38.6)	263(48.1)	852(36.3)	
건강 상태	일상생활도 곤란	22(2.9)	5(1.7)	36(4.9)	9(1.7)	72(3.1)	
	직업생활 곤란	84(11.0)	25(8.5)	155(20.9)	76(13.9)	340(14.5)	
	쉬운 직업 가능	130(17.1)	41(14.0)	151(20.3)	96(17.6)	418(17.8)	
	일에 제한 없음	525(68.9)	222(75.8)	401(54.0)	365(66.7)	1,513(64.5)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 소지	103(13.5)	72(24.6)	45(6.1)	159(29.1)	379(16.2)
	자격증 미소지	659(86.5)	221(75.4)	698(93.9)	388(70.9)	1,966(83.8)	
합 계		762(32.5)	293(12.5)	743(31.7)	547(23.3)	2,345(100.0)	

그보다는 과거 나이 든 세대에서 농림업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보다 더 취업연속적인 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비농림직의 분포가 증대되면서 오히려 결혼후 퇴장 혹은 불연속 취업을 하며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lt;표 2&gt; 취업경력 유형별 특성 비교를 위한 일원변량분석결과: &lt;연령&gt;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연속취업형	-	***(-5.44)	***(-1.34)	***(-3.99)
불연속취업형	***(-5.44)	-	***(-6.78)	***(-1.45)
비경제활동형	***(-1.34)	***(-6.78)	-	***(-5.32)
결혼후 퇴장형	***(-3.99)	***(-1.45)	***(-5.32)	-
평균값	50.70			
R <sup>2</sup>	0.12			
F값(df.)	104.47(3)***			

주: ① 괄호 안의 값은 좌변 집단과 우변 집단의 평균차임.

②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취업경력 유형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불연속취업형’과 ‘결혼후 퇴장형’이 다른 두 집단, 즉 ‘연속취업형’과 ‘비경제활동형’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이후의 집단간 차이 분석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불연속취업형’과 ‘결혼후 퇴장형’이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형’보다 젊은층이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높은 경력단절 경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높은 인적자본으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하다는 점, 고학력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태도, 고학력 여성에 걸맞는 노동시장 수요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이 조사대상의 경우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특기할 점은 연속취업형 여성보다 ‘비경제활동형’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후의 결과들에서 계속 표현되는 ‘연속취업형’ 여성들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으면서 학력 수준은 낮고 취업애착은 높아 계속 취업하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취업연속성과 교육수준의 정적 효과를 예견하는 논의들과는 배치되는 취업 유형이다.

<표 3> 취업경력 유형별 특성 비교를 위한 일원변량분석결과: < 졸업 연령 >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연속취업형	-	***(-3.34)	***(-1.22)	***(-4.19)
불연속취업형	***(3.34)	-	***(2.12)	
비경제활동형	***(1.22)	***(-2.12)	-	***(-2.98)
결혼후 퇴장형	***(4.19)		***(2.98)	-
평균값	15.61			
R <sup>2</sup>	0.07			
F값(df.)	60.08(3)***			

주: ① 괄호 안의 값은 좌변 집단과 우변 집단의 평균차임.

②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표 4>는 조사대상 여성들이 15세일 때 어머니가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취업경력 유형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연속취업형' 여성들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성역할사회화론'의 주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연속 취업형'이나 '결혼후 퇴장형'은 '비경제활동형'보다 어머니 취업 경험률이 낮게 나타나서 어머니의 취업 경험 여부가 자녀인 여성의 취업애착을 증대시킨다는 점은 확고하게 지지받지는 못한다.

<표 4> 취업경력 유형별 특성 비교를 위한 일원변량분석결과: < 어머니 취업력 >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연속취업형	-		***(0.12)	***(0.22)
불연속취업형		-		***(0.13)
비경제활동형	***(-0.12)		-	***(-0.09)
결혼후 퇴장형	***(-0.22)	***(-0.13)	***(-0.09)	-
평균값	1.63			
R <sup>2</sup>	0.03			
F값(유의도 수준)	23.35(3)***			

주: ① 괄호 안의 값은 좌변 집단과 우변 집단의 평균차임.

②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현재 여성들의 건강 상태가 취업경력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것이 <표 5>이다. 분석 결과, '연속취업형'과 '불연속취업형'이 '비경제활동형'과 '결혼후 퇴장형'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후 퇴장형'은 '비경제활동형'보다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연속취업형'과 '불연속취업형'은 건강한 인적자본을 지닌 여성들로 직업생활에 적극적인 취업애착을 보이는 반면 '비경제활동형'과 '결혼후 퇴장형'은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을 중단하거나 혹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종속변수가 되는 '건강 상태'가 현재 시점의 사실이고 취업경력이 진행된 과거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취업경력 유형이 변했는지,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건강 상태가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별도의 분석이 요구되며 다만 취업경력 유형별로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취업경력 유형별 특성 비교를 위한 일원변량분석결과: < 건강 상태 >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연속취업형	-		*** (0.29)	*** (0.32)
불연속취업형		-	*** (0.13)	*** (0.33)
비경제활동형	*** (-0.29)	*** (-0.40)	-	*** (-0.27)
결혼후 퇴장형	*** (-0.32)	*** (-0.33)	*** (0.27)	-
평균값	3.44			
R <sup>2</sup>	0.03			
F값(유의도 수준)	23.59(3)***			

주: ① 괄호 안의 값은 좌변 집단과 우변 집단의 평균차임.

②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취업경력 유형별로 자격증 소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



표 6>이다. 분석 결과, '비경제활동형'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자격증 소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면서 학력수준이 낮고 자격증 소지율도 낮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인적자본량이 낮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후 퇴장형과 불연속 취업형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자격증 소지율도 높았다.

<표 6> 취업경력 유형별 특성 비교를 위한 일원변량분석결과: < 자격증 소지 여부 >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연속취업형	-	***(-0.11)	***(-0.07)	***(-0.16)
불연속취업형	***(-0.11)	-	***(-0.19)	
비경제활동형	***(-0.07)	***(-0.19)	-	***(-0.23)
결혼후 퇴장형	***(-0.16)		***(-0.23)	-
평균값	1.16			
R <sup>2</sup>	0.06			
F값(유의도 수준)	50.47(3)***			

주: ① 괄호 안의 값은 좌변 집단과 우변 집단의 평균차임.

②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지금까지 취업경력 유형별로 나눈 네 개의 집단, 즉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 집단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집단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경제활동형'은 조사대상 여성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들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며, 자격증 소지율 및 건강과 같은 인적자본요소도 저열한 집단이다. 그러나 '연속취업형'은 취업행위의 측면에서

가장 취업에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집단의 교육수준이 전체 유형 집단 가운데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머니의 취업경험률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취업의 다른 요소들을 갖춘 여성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편으로 주로 농림직에 종사하면서 일생동안 일해온 여성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불연속 취업형'과 '결혼후 퇴장형'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로서 교육 수준과 자격증 소지율이 높은 여성들이다. 다만 이 두 집단은 '건강' 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후 퇴장형' 여성들이 전체 유형 집단 가운데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연속 취업형'은 '연속취업형'과 함께 매우 건강한 여성들로서 이 여성들이 40세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 2. 생애과정 씨퀀스별 (비)취업 이행률에 대한 분석 결과

### 가. '취업으로 이행'에 미치는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

조사시작 시점인 15세부터 조사완료 시점까지의 생애사 자료에 대한 사건사분석을 통해서 각 요인들이 여성들의 취업으로 이행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것이 <표 9>의 내용이다. 여성들의 첫 번째 취업 이행 과정만을 분석하되,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순서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별로 연구 모형을 설정했다. '취업후 결혼형'의 분석대상은 1,946명이며, '결혼후 취업형'의 분석대상은 1,380명이다. '결혼후 취업형' 여성 1,380명 가운데 첫 취업을 경험한 여성들은 전체의 58.2%이고 나머지 577명, 41.8%는 조사시점까지 첫 취업을 경험하지 않아 우측절단된(right-censored) 자료이다. 두 연구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첫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요인별 효과를 비교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코호트별로 두 집단의 취업 이행률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준거범주인 40대 여성보다 50대 여성들의 취업 이행률이 낮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취업후 결혼형'에선 40대 여성들의 취업 이행률과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결혼후 취업형’에선 20대, 30대 여성들이 40대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취업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즉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을 하고서 첫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이행에 대한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취업후 결혼형’에선 예상대로 수학기간이 긴 고학력일수록 일률적으로 취업 이행률이 낮아졌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졸업 연령이 늦춰져서 첫 취업 진입 시점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에 이와 같은 학력 효과는 사라진다. 취업보다 먼저 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 준거범주인 고졸 여성들보다 학력이 낮은 무학자, 또는 초졸 학력 여성들의 취업 이행 시점이 더 앞당겨지고 고졸 여성들보다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고졸여성들과 취업 이행 시점의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결혼과 취업의 순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학력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인적자본 요소는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대상 여성들의 아버지의 직업은 여성들의 취업 이행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 전문직 아버지를 둔 여성의 취업 이행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경험 여부 역시 결혼을 먼저 하고서 취업한 여성들의 경우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업한 여성들에 비해, 취업하기 전에 결혼이나 출산을 먼저 한 여성들의 경우, 부모의 인적자본요소가 취업 이행을 높이는 데 정(+)적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애과정 변수들이 두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취업후 결혼형’의 경우, 첫 취업 이전에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구 모형의 출산변수, 자녀 변수 등의 생애과정 변수가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거의 발견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첫 출산의 경우에 결혼보다 출산이 앞선 여성들이 전체의 4.5%인 183명으로 이 여성들의 경우엔 첫 출산을 하고서 오히려 취업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불변변수로 일회적인 경험 여부만을 표현하는 ‘둘째 출산’ 경험자의 경우도 첫 취업으로 이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 둘째 출산, 어린 자녀의 존재, 총자녀수 등과 같

은 생애과정 변수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을 지연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첫 출산을 하고서는 오히려 취업을 앞당기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하기 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첫 아이를 낳고서 미뤘던 취업을 하게 되므로 예상과 달리 출산이 취업에 정(+)<sup>적</sup>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7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첫 취업으로 이행률이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결혼후 취업 집단도 취업경력상에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집단은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학교에 다닐 때까지의 생애사건들이 경제활동 참여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집단이다. 이런 생애과정 순서를 밟는 여성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취업 시점을 연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든,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든 어차피 연기된 취업 시점을 더 늦추지도 앞당기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또 다른 집단은 비록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첫 아이를 낳고서 미뤘던 취업을 재빨리 단행하는 집단으로서 이 집단의 여성들은 위의 취업시점을 자녀들이 클 때까지 연기하는 집단의 여성들과 달리,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대부분 첫 취업을 중단한다. 이와 같이 ‘결혼후 취업형’ 내부에 취업 행위의 측면에서 상이한 두 집단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 절의 비교집단이 되고 있는 ‘취업후 결혼형’과 ‘결혼후 취업형’의 관찰 사건 발생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취업후 결혼형’ 여성들의 첫 취업 연령이 평균 20.5세인 반면, ‘결혼후 취업형’ 여성들의 첫 취업 연령은 무려 15년이나 늦은 평균 35.9세이다. 이 연령은 바로 첫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고 둘째아이는 어린 상태로 결과적으로 총자녀수는 더 늘어난 생애과정 단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의 첫 취업 이행에는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과 달리 어린 자녀의 존재나 총자녀수가 부(-)<sup>적</sup> 효과를 갖지 않고 오히려 정(+)<sup>적</sup>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성들 내부에는 생애과정 씨퀀스 및 취업경력 씨퀀스 상에 매우 상이한 집단들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이행과정에 동일한 요인들이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취업 유형의 복잡성을 염두에 둘 때, 여성취업 결정 요인들의 효과의 방향과 정도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은 현상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표 9> 여성들의 첫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콕스회귀분석결과

변 수		무차 모형	취업후 결혼형	결혼후 취업형
출생코호트	20대	-0.662(0.092)***	0.049(0.103)	1.769(0.431)***
	30대	0.421(0.049)***	0.101(0.057)#	0.722(0.118)***
	(40대)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50대	-0.405(0.055)***	-0.226(0.077)**	-0.673(0.096)***
	60대 이상	-0.735(0.073)***	0.228(0.115)*	-1.162(0.127)***
학력	무학	0.038(0.095)	0.284(0.142)*	0.430(0.154)**
	초졸	-0.078(0.066)	0.348(0.092)***	0.301(0.106)**
	중졸	0.419(0.057)***	0.496(0.076)***	0.005(0.105)
	(고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전문대졸	0.471(0.114)***	-0.622(0.115)***	-0.230(0.366)
아버지의 직업	대졸 이상	0.165(0.069)*	-1.049(0.073)***	-0.040(0.148)
	전문·행정·관리	0.190(0.075)**	0.155(0.095)	0.352(0.173)*
	사무	0.015(0.062)	0.058(0.086)	0.039(0.161)
	판매·서비스	0.105(0.062)#	0.101(0.079)	0.161(0.139)
	(농림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어머니의 취업력	생산·기술·노무	0.222(0.078)**	0.094(0.096)	0.218(0.160)
	무직	0.201(0.154)	0.578(0.197)**	0.529(0.260)*
	취업경험이 없다	-0.158(0.039)***	-0.073(0.059)	-0.360(0.087)***
첫 출산 경험	(취업경험이 있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기간내 출산 안 함)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둘째 출산 경험	기간내 출산함	-1.059(0.110)***	0.673(0.208)**	1.567(0.328)***
	(둘째 출산 안 함)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6세 미만 자녀	둘째 출산함	0.547(0.044)***	0.200(0.059)***	-0.172(0.128)
	(없다)	준거범주	0	준거범주
학령기 자녀	있다	( )	0	-0.051(0.165)
	(없다)	준거범주	0	준거범주
총자녀수	있다	( )	0	0.185(0.098)#
	(없다)	준거범주	0	준거범주
합 계	총자녀수	( )	0	-0.024(0.067)
	사건수		N=1,946	N=1,380
	절단된 수(%)		N=1,946	N=803
-2 log likelihood			N=0(0.0)	N=577(41.81)
	(자유도)		25735.243(17)**	10478.699(20)**

주: ①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②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나. '비취업으로 이행'에 미치는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

여성들의 '비취업으로 이행'의 분석 대상은 한번 취업한 경험이 있어서 취업단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다. '취업후 결혼형' 여성의 전체인 1,946명과 '결혼후 취업형' 여성 가운데 취업한 적이 있는 803명의 여성이 이 절의 분석 대상이다. '취업후 결혼형' 여성 가운데 관찰사건인 취업중단을 경험한 여성들은 1,602명이고 나머지 344명, 17.7%는 조사완료 시점까지 첫 취업 상태를 유지하여 우측절단된 자료이다. '결혼후 취업형' 여성 가운데 관찰사건인 취업중단을 경험한 여성들은 256명이고 나머지 547명, 68.1%는 조사완료 시점까지 첫 취업 상태를 유지하여 우측절단된 자료이다.

'비취업으로 이행'에 미치는 요인들의 사건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출생코호트별로 첫 취업 단절 행위를 살펴보면, '취업후 결혼형'과 '결혼후 취업형' 모두 젊은 여성들일수록 경력 단절 경향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나이드는 세대일수록 취업연속성이 더 높고, '취업후 결혼형'은 2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 경향이, 또 '결혼후 취업형'은 20대, 3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 경향이 준거범주인 40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최근 세대로 올수록 취업연속성이 증대된다는 전망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학력'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미치는 영향은 두 비교집단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후 결혼형'의 경우 학력의 취업단절 효과는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준거범주인 고졸 여성들에 비해 무학력자와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들의 취업단절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졸 여성들은 고졸 여성보다 취업 단절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력 효과는 여성들 내부에 취업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의 존재를 암시한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중이 큰 무학력자 여성들은 대부분 '농림직'에 종사하면서 취업연속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 세대로 오면

서 ‘비농림직’의 비중이 커지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 경향도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와 함께 교육수준의 취업 단절 완화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비취업 이행에 대한 ‘학력’ 효과가 이와 같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만을 볼 때, ‘취업후 결혼형’의 경우에는 최근 세대로 오면서 어느 정도 인적자본론의 설명틀에 부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 이와 같은 학력의 효과는 모두 사라지고 다만 초졸 여성들이 고졸 여성보다 취업 단절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한국 여성들은 인적자본론의 주장과 배치되는 취업 경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결혼후 취업형’ 여성들의 경우 아버지 직업이 ‘전문·행정·관리직’이었던 여성들이 첫 취업 단절 경향이 높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인 여성들의 취업 단절 경향이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 경험 여부는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에 오히려 부(-)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첫 취업 직종이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후 결혼형’의 경우 준거집단인 ‘농림직’과 ‘전문직’ 및 ‘준전문직’은 취업 단절 행위에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운수·노무직’ 여성들은 ‘농림직’에 비해 취업 단절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여성들의 첫 취업 직종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농림직’과 ‘전문직’의 취업연속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에는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직종 효과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다만 ‘준전문직’의 경우 준거범주인 ‘농림직’에 비해서 경력 단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준전문직’은 주로 학습지 교사와 같이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직종은 상대적으로 나이든 여성들로 구성된 ‘결혼후 취업형’의 경우에 취업연속성의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직종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사상의 지위별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무 형태의 경직성이 가장 높은 상용직 여성들과 고용 안정성이 가장 낮은 임시·일용직 여성들의 취업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족종사자와 고용주·자영업자의 경력 단절 경향이 낮게 나타났지만, 결혼후 취업한 여성들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의 경력 단절 완화 경향은 사라짐을 또한 볼 수 있다.

이제 생애과정 변수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두 비교집단 별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취업후 결혼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취업단절을 야기하는 생애사건들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은 여성들의 취업중단율을 급격히 높였다.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중단율을 높였다. 반면 여성들의 취업중단율을 가장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학령전기 자녀의 존재’, ‘총자녀수’와 같은 요인들은 반대로 여성들의 취업중단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이상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예상대로 여성들의 취업중단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변수의 취업중단 억제 효과보다 ‘6세 미만 어린 자녀’ 변수의 취업중단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도 위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취업후 결혼형’ 집단 내부에는 경제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한 집단은 첫 취업을 시작하고서 결혼 또는 출산을 경험하면서 빠르게 노동시장을 퇴장한다. 상대적으로 경력단절경향이 높은 여성들, 또는 첫 취업의 기간이 짧은 여성들이 ‘취업후 결혼형’ 집단에서 빠져나가고 남은 또 다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취업연속성 또는 취업애착이 높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첫 취업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둘째 출산을 경험하면서 첫 번째 취업을 중단하는 취업 행태를 보인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학령기에 있을 때 그 동안 지속했던 첫 취업을 마감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혼후 취업형’은 첫 취업으로 이행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비취업으로 이행 분석의 결과도 뚜렷한 결정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위의 ‘취업후 결혼형’의 경우와 달리, 이들 집단에서는 ‘출산’, ‘어린 자녀의 존재’, ‘학령기 자녀의 존재’, ‘총자녀수’등과 같은 생애사건 또는 생애과정이 취업 중단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여성들은 이미 첫 취업에 진입할 때 위와 같은 생애단계들을 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에게 취업단절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취업 지속성의 감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약하지만 ‘학령기 자녀의 존재’가 여성들의 취업 단절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여성들을 가족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일 것으로 짐작되었지만, 반대로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연령 증가 대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두 비교집단의 관찰 사건 발생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취업후 결혼형’ 여성들의 첫 취업 단절 연령이 평균 30.6세인 데 비해, ‘결혼후 취업형’ 여성들의 첫 취업 단절 연령은 평균 40.7세이다.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30세와 40세가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 효과가 여성들의 취업 또는 비취업 이행 행위에 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lt;표 10&gt; 여성들의 첫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콕스회귀분석결과

변 수		무차 모형	취업후 결혼형	결혼후 취업형
출생코호트	20대	1.156(0.99)***	0.687(0.111)***	3.346(0.688)***
	30대	0.493(0.057)***	0.043(0.061)	1.370(0.254)***
	(40대)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50대	-0.701(0.076)***	-0.092(0.090)	-0.165(0.202)
	60대 이상	-1.554(0.120)***	-0.299(0.169)#	-0.871(0.266)***
학력	무학	-1.257(0.145)***	-0.428(0.229)#	-0.363(0.281)
	초졸	-0.767(0.092)***	-0.003(0.121)	-0.504(0.216)*
	중졸	0.595(0.071)***	0.240(0.089)**	-0.176(0.203)
	(고졸)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전문대졸	0.670(0.126)***	-0.205(0.124)#	0.591(0.608)
	대졸 이상	0.259(0.085)**	-0.503(0.089)***	0.334(0.327)
아버지의 직업	전문·행정·관리	0.464(0.086)***	0.121(0.103)	0.604(0.305)*
	사무	0.420(0.073)***	0.149(0.092)	0.024(0.297)
	판매·서비스	0.484(0.071)***	0.229(0.084)**	0.504(0.228)*
	(농림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생산·기술·노무	0.364(0.092)***	0.094(0.101)	-0.142(0.333)
	무직	-0.109(0.202)	0.218(0.228)	0.416(0.464)
어머니의 취업력	취업경험이 없다	0.243(0.048)***	0.022(0.063)	-0.304(0.165)#
	(취업경험이 있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직 종	전문직	1.380(0.125)***	-0.151(0.234)	-0.293(0.545)
	준전문직	1.723(0.134)***	0.249(0.230)	0.006(0.489)***
	사무직	2.080(0.104)***	0.378(0.211)#	-0.476(0.422)
	판매·서비스직	0.827(0.111)***	0.374(0.201)#	-0.281(0.296)
	(농림어업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생산·운수·노무	1.499(0.103)***	0.472(0.203)*	0.144(0.303)
종사상 지위	(상용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가족종사자	-1.989(0.095)***	-1.237(0.186)***	-1.094(0.269)***
	고용주·자영업	-1.384(0.100)***	-0.758(0.150)***	-0.121(0.209)
	임시·일용	-0.771(0.076)***	0.068(0.097)	-0.084(0.165)
첫 출산 경험	기간내 출산 안 함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기간내 출산함	-0.218(0.069)***	2.735(0.390)***	1.664(0.780)
둘째 출산 경험	(둘째 출산 안 함)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둘째 출산함	0.537(0.051)***	0.390(0.065)***	0.330(0.263)
6세 미만 자녀	(없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있다	1.668(0.068)***	-1.080(0.318)***	-0.109(0.280)
학령기 자녀	(없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있다	6.760(0.502)***	-0.511(0.195)**	0.059(0.195)#
총자녀수		6.304(0.500)***	-1.075(0.095)***	-0.169(0.144)
합 계			N=1,946	N=803
사건수			N=1,602	N=256
절단된 수(%)			N=344(17.72)	N=547(68.12)
-2 log likelihood	(자유도)		21162.912(28)***	2886.840(21)***

주: ①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②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 V. 맺음말

한국사회가 40년 동안 지속해온 인구억제정책을, 2001년을 기점으로 인구축진정책,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대안적 노동력군으로서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한국사회 여성들의 독특한 취업 실태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취업률, 복잡한 취업 경력 유형, 잦은 경력 단절의 원인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에 여성들의 독특한 생애과정 쉼스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의 효과 이상으로 과거 생애과정의 축적된 연계의 효과가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두 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조사대상 여성들의 생애과정 쉼스별로 구분되는 네 개의 취업경력 유형들 사이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가설이었다. 이때 관찰대상의 정보를 균일하게 하고 우측절단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여성들을 40대 이상으로 제한하고 40세까지의 생애과정 쉼스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생애과정 쉼스의 순서 배열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은 매우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애과정 쉼스의 순서 배열에 따라 두 집단으로 여성들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취업으로 이행', '비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사건사분석을 함으로써 동일한 설명변수의 상이한 취업 이행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여성들의 취업경력 유형은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서 비경제활동형이 전체 여성의 31.7%를 차지하는 등 여성집단 내부에 취업경력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이들 집단간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부

모의 인적자본', '건강 상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씨퀀스 배열의 서열차에 따라 구분된 '취업후 결혼형'과 '결혼후 취업형'은 취업 진입과 취업 단절 행위에서 매우 구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경력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생애사건의 순서에 따라 취업이행률을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연구모형에서도 취업 이행 행위의 '세대효과'나 '학력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 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생애과정 변수들도 여성들의 취업 이행 혹은 비취업 이행에 일률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들 내부에 경제활동상의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하며 각 집단내부의 여성들은 다양한 취업 경로를 밟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여성들의 이와 같은 취업 경로상의 이질성 혹은 취업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편차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 여성 취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성격 규명과 정책 입안은 이와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취업 이행 경로를 논의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 200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미간행). 307.
- 김영옥. 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98 연구보고서 230-22. 3-52.
- 나탈리 소콜로프. 1996.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제36집 2호.
- 어수봉. 1996.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21-144.
- 은기수. 1996.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1호. 89-117.
-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19권 1호. 1-45.
- 통계청. 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여성개발원. 1985.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_\_\_\_\_. 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_\_\_\_\_. 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97 연구보고서 220-19.  
\_\_\_\_\_. 1999. 『1998 여성통계연보』. '98 연구보고서 230-2.
- 한국여성연구소. 1999. 『새 여성학강의』. 동녘.
- 한 준. 2001. 「사회이동 경로의 배열 분석」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미간행). 159-174.

- Allison, Paul D. 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SAS Institute Inc..
- Abbott, Andrew. "Sequences of Social Events: Concept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Order in Social Processes" *Historical Methods* 16(4). 129-147.
- Becker, Gary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t, W. Keith.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Jiyeun. 1997.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
- Chan, Tak Wing. 1995. "Optimal Matching Analysis: A Methodological Note on Studying Career Mobility" *Work and Occupations* 22(4)(November). 467-490.
1999. "Revolving Doors Reexamined: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Over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 Corcoran, Mary & Greg J. Duncan. 1979. "Work History, Labor Force Attachment, and Earnings Differences Between Races and Sex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winter). 3-20.
- Drobnic, Sonja, Hans-Peter Blossfeld, Gotz Rohwer. 1999.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ourse: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33-146.
- Elder, Glen H. Jr.. 1985.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Elliot, Jane, Angela Dale & Muriel Egerton. 2001. "The Influence of Qualifications

- on Women's Work Histories, Employment Status and Earnings at Age 33."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2: Oxford University Press. 145-168.
- England, Paula. 1982. "The Failure of Human Capital Theory to Expla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3). 358-370.
- Halpin, Brendan & Chan, Tak Wing. 1998. "Class Careers as Sequences: An Optimal Matching Analysis of Work-Life Histo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4(2)(July). 111-130.
- Lee, Mijeong. 1996.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Women's Lives Under Institutional Conflict" (Dissertation of Ph.D.). UCLA.
- Mincer, Jacob & Haim Ofek. 1982. "Interrupted Work Careers; Depreciation and restoration of Human Capit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3-24.
- Moen, P. 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3-1980*. (ed.) by G. Elder Jr.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Parish, William L. and Robert J. Willis 1993. "Daughters, Education and Family Budgets: Taiwan Experienc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 863-898.
- Scherer, Stefani. 2001. "Early Career Patterns: A Comparison of Great Britain and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June). 119-144.

## **"Sequence Analysis in Women's Work Transition"**

Ki-Soo Eun, Soo-Mi Park

In general,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follows a M-curve pattern because women's state of economic activity usually changes by their life course stage. This research attentions that the effect of sequence of life course as well as the effects of 'marriage bar', or 'maternity leave'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women's changing economic activity status. First, this research hypothesizes that women's four patterns of job career such as 'continuous pattern', 'discontinuous pattern', 'non-economic activity pattern', 'marriage leave pattern' resul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nd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ordering and timing of life events on women's work transi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labor market dynamics to conceptualize labor market behaviors using longitudinal data and sequence analysis and event history analysis.

We find that four patterns of job career vary by age, educational attainment, having a certificate or not, their parents' human capital and health status. And we find that the ordering and timing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marriage' determine the pattern of women's work transition.

**Keyword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M-curve pattern, the effect of sequenc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pattern of women's work transition